

## 중국과의 FTA를 걱정할 때...



- ▶일 시 : 2007년 6월 5일
- ▶장 소 : 본회 회의실
- ▶사 회 : 이종길 본회 전무
- ▶참석자 : 최준구 회장, 오봉국 고문(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장대석 고문(전 양계협회장), 김교석 고문(전 양계협회 부회장), 박근식 고문(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정선부 고문(전 축산연구소장), 한성욱 충남대 명예교수, 이연중 부회장

고병원성A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한미 FTA 협상 결과가 발표되는 등 양계업의 주변 여건이 점점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양계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으나 시원한 해결책을 찾기가 결코 쉽지만은 않다.

본고는 지난 6월 5일 본회 사무실에서 오봉국 고문을 비롯한 원로 양계인들을 모시고 '양계산업 당면과제'에 대해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였다.

- 편집자주 -

**이종길** :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고문(원로인)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양계산업은 한미 FTA, 고병원성 AI, 자조금 사업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이 상존해 있습니다.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양계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오봉국** : 최근 한미 FTA 협상 과정과 결과 분석 등을 접해보면 양계산물이 타 축종에 비해 평가절하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특히 계란은 피해를 예측하는 기관에서조차 다루지 않고 있어 자칫 채란업이 경쟁력이 있는 양 비취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최근에는 저장 시설이 뛰어나기 때문에 전세계 어느 나라도 가격만 낮다면 언제든지 수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양계인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 만큼 계란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회를 중심으로 노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또한 양계분야에 연구비 지원이 거의 없다보니 양계분야 연구자들이 활동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돈이 있어야 연구사업도 수행 할 수 있기 때문에 양계분야에서 의욕을 갖고 연구할 수 있도록 인력활용 및 인력자원개발을 위해서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원천인 의무자조금사업이 조기에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선부** : 세계가 이제는 글로벌 시대로 완전히 들어섰습니다. 지금까지 축산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미국과 FTA 협상이 이루어졌으며, 협상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EU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중국과의 FTA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가깝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미 많은 농산품들이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양계산품까지 합세할 경우 국내 시장은 외국산품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피해액과 대책을 세울 때에도 단순한 계산 보다는 축산 전후방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평가를 하여 농가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박근식** : 양계산업은 과거 70~80년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사양기술만을 습득하면 양계를 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당시 사양기술, 질병관리 등을 양계인들에게 보급시키기 위해서 전국을 돌면서 '양계 강습회'를 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유통, 무역, 질병 등 각종 문제점들이 양성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정보와 기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계에서 연구되는 내용과 현장에서 적용하는 사안을 유기적으로 잘 연계하여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 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축산물 안전성 문제가 중시되



| 긴급좌담 · 양계 원로인과의 대화 |

고 있기 때문에 HACCP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농장시설로는 이를 적용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의 지원책이 우선적으로 따라주어야 할 것입니다.



**김교석** : 양계업을 운영하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이나 규정에 대해 협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합니다. 한 예로 농장을 경영하다보니 비현실적인 소방법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소방법에 의하면 축사시설 400평방미터(약 120평) 이상을 건축할 때에는 반드시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되어있으나 일일이 자금을 투자해 소방시설을 하더라도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할 일이 거의 없고 고장도 잦아 때로는 오작동으로 닭들이 놀라는 경우도 있어 오히려 소화기를 몇 대 더 비치하는 편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 농장의

HACCP적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부터 시행되는 무항생제축산물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농가들에게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를 한가지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없는지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성욱** : 오랫동안 검정위원으로 일해왔던 한 사람으로써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정사업이 어려움을 맞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 걱정이 앞섭니다. 검정사업은 그동안 농가들에게 좋은 병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주면서 양계산업 발전을 주도해 왔고, 정부로부터의 일부 보조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양계협회의 핵심사업이 되어왔습니다. 현재 안성에 있는 검정소의 계사들이 시설한지 20여년이 흘러오면서 시설이 낙후되고 주변환경의 오염요소가 증가되면서 검정소 이전을 추진해왔지만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이면서 현재로서는 이전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100%의 지원을 통해 현재

의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방법이 수반되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검정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현실적인 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합니다.



**장대석** : 산란계 자조금사업과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부화장으로부터의 자조금 거출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본인이 회장직에 있을 때에도 사료의 거출 타당성이 검토되었으나 타 축종에서의 적용이 쉽지 않았고, 산물인 계란에서의 자조금 거출은 더욱 힘들었기 때문에 부화장에서의 거출을 추진 한 바 있습니다. 임의 자조금을 처음 시작한 양계업계에서 타 축종에 뒤처지고 있는 것이 못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육계산업도 마찬가지로 양계인들이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미 FTA 등으로 양계업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오는 10월 중순에 전국양계인대회를 준비한다고 하니 양계인들의 마음을 결집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많은 양계인들이 참여하여 앞으로의 양계산업을 새롭게 다질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언중** : 하루가 다르게 양계업계는 변화해 가는 것을 느낍니다. 정부로부터의 지원은 점점 줄어들면서 우리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해 풀어나가야 할 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협회의 조직도 지자체의 역할이 크다보니 지부들끼리 연대하여 연합회를 만들고 종계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종계지부가 탄생하는 등 역할들이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대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살아 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협회에서도 양계 안전성 문제 종계 DB사업, 계열화 사업, 자조금 사업 등 한미 FTA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갈 방향을 정확히 짚고 나갈 수 있도록 종계업계를 맡은 부회장으로써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최준구** : 협회는 한미FTA협상 당시 양계산물을 민감품목에 포함시켜 최대한의 유리한 협상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무던히 노력해왔습니다. 비록 15년 이내에 모든 품목이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는 것으로 되었지만 만약 비준이 통과되어 한미 FTA가 발효될 때를 대비해 정부에 대책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중 몇가지를 보면 정부지원시 계열사가 아닌 농가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줄 것과 부화종계업의 경우 신고제와 등록제로 완화된 사항을 허가제로 전환시켜 양계의 근간인 종계부화업을 바로잡는 것, 그리고 계란유통 개선을 위해 계란집하업의 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 등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부적 양계산물의 안전성 문제가 자주 보도되고 동물 복지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산란기계 닭'이라는 제목으로 반영된 '환경스페셜'에서는 닭들이 나쁜 환경에서 고통을 받는 장면 등이 나오면서 업계를 긴장시킨 바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방송이 나가기 전 관계자들을 만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고 방송 이후에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등 기민한 대처를 했습니다. 앞으로 협회에서는 양계인의 대변인으로 모든 상황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이종길** : 지금까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협회에서는 양계산업 발전을 목표로 지금 제시된 문제는 물론 양계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하여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 김동진 편집장)

